



WKPC 제42회 총회가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열렸다.

한기총 · 한기연 · 한교총 6월 중 통합 선언

각 기관 통추위, 최근 모임 갖고 이 같이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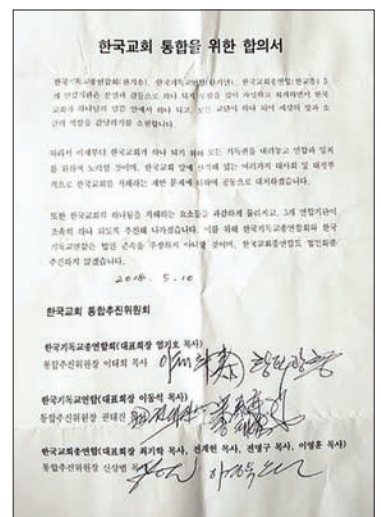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의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6월 중 각 기관에 소속된 교단장 전체가 참여하는 기도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각 기관들의 통합을 선언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최기학·전계현·전명구·이영훈 목사)의 통추위들은 10일 오후 서울 엠베스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한기총에서 이태희·황덕광 목사, 한기연에서 권태진·송태근 목사, 한교총에서 신상범·이경옥 목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교회 통합을 위한 합의서'에서 "3개 연합기관은 분열과 갈등으로 하나되지 못함을 깊이 자성하고 회개하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되고, 모든 교단이 하나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제부터 한국교회가 하나되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교회 앞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대사회 및 대정부적으로 한국교회를 저해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



각 연합기관 통추위들이 10일 서명한 '한국교회 통합을 위한 합의서'

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3개 연합기관이 조속히 하나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기총과 한기연은 법인 존속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한교총도 법인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 연합기관의 통추위는 각 통추위에서 5명씩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7일 확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WKPC 제42회 총회 “네 지경을 넓혀라”

총회장에 조의호 목사 등 임원 선출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World Korean Presbyterian Church) 제42회 총회가 나성열린문교회(박헌성 목사 시무)에서 지난 5월 15일 열렸다. 총회의 주제는 “네 지경을 넓혀라(대상4:10)”이다. 이 총회는 17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총회는 전체 445명의 총대 가운데 목사 251명, 장로 70명 등 총 321명이 참석함으로 개최됐다. 이 교단은 특히 지난해 교단적 뿌리가 같은 미주합동총회와 통합하면서 교세가 더욱 확장됐으며 올해는 미주 전역과 중남미, 중국, 아프리카에 22개 노회를 둔 것으로 보고됐다.

이 총회는 개회예배로 시작됐으며 총회장 김광석 목사가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성찬식이 거행됐으며 성찬식에서는 정갑식 목사가 “죄인들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장에 조의호 목사(성화교회, 뉴욕서노회), 목사 부총회장에 최인근 목사(빌립보

교회, 시애틀노회), 장로 부총회장에 정진식 장로(나성열린문교회, 가주노회), 서기에 나정기 목사(성실교회, 미주서부노회), 부서기에 안상준 목사(시온장로교회, 워싱턴노회), 회록서기에 서보천 목사(돌로스교회, 가주노회), 부회록서기에 라명철 목사(다우니아가페교회, LA노회), 회계에 김충경 장로(나성열린문교회, 가주노회), 부회계에 박원배 장로(서머나교회, 뉴욕노회)가 선임원으로 뽑혔다.

총회장 조의호 목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총회장의 직분을 맡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면서 “십자가 군기를 굳게 붙들고 진군하겠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임하는 김광석 전 총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단합하며 기도할 때 우리 총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리라 믿는다”면서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무궁한 발전과 부흥이 있기를 축복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친선 사절단이 인사하는 시

간도 있었다. 총회장 전계현 목사, 총무 최우식 목사, 회록서기 장재덕 목사, GMS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찬곤 목사, 이사 이익희 목사 등 교단 고위 인사들이 앞으로 나와 회원들에게 인사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텍사스에 본교를 두고 있는 남부개혁신학교(총장 이광진 목사)가 총회 인준을 받았다. 이로써 이 교단은 국제개혁대학교 및 신학대학원과 버지니아 크리스천대학교에 이어 3번째 교단 인준 신학교를 두게 됐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대서양노회의 총회 가입을 허락했다.

이번 총회 기간 중에는 각종 회무처리와 함께 예배와 선교 특강 등이 진행됐다. 총회 둘째날 선교 특강은 가주노회장 서보천 목사의 사회로 GMS 이사장 김찬곤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GMS의 사역 가운데 최근의 주요한 변화를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선교로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저녁에는 WKPC 세계선교회 선교의 밤이 열려 선교 의식을 고취시켰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

2005년 시작돼 지난 13년 간 270회의 부부학교를 통해 약 25,000여 커플의 가정 회복을 도운 두란노부부학교가 미주 본부 제1기 부부학교를 개설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두란노아버지학교의 이명철 사무국장은 “아

버지학교 졸업 후 아버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부부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훈련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미주 지역에서 부부학교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면에 계속〉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국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한기홍 목사가 은혜경로잔치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효도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지난 5월 8일 오전, 남가주와 OC 지역 원로목회자 부부,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은혜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약 3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1부, 예배에서는 한기홍 목사가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룻1:15-18)”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 삶을 함께 하며 공경하고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서 “룻이 예수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도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서는 남가주원로목사회장 이범중 목사와 OC원로목사회장 임흥순 목사가 각각 대표기도와 축도를 했다.

2부와 3부 순서에서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나누었고 특별히 영 김 연방 하원의원 후보가 참석해 축하했다.

이어 국악 무용팀, 드럼 연주, 라인댄스, 국제 찬양 울동 선교대학의 무용과 은혜평생대학(은혜시니어스쿨) 밴드팀의 공연 등을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 후에는 푸짐한 선물과 경품 추첨을 통하여 즐거움을 더하였다.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남가주지회 모임에서 여성동지회가 찬양하고 있다.

기독교인회 조국 수호 집회

안신기 목사, 김경준 박사 등 메시지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남가주 지회(회장 김회창 박사)가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에 미주3.1여성동지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생장로교회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열었다.

최정학 부회장의 사회로 남가주 목사회장인 샘 신 목사가 기도한 후 미주성결 남가주교역자회 회장인 안신기 목사가 “사마리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에는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무기전문가 김경준 박사가 특별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어 북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간략

히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의 기도를 요청했다.

이어 우루과이를 섬기는 전종철 선교사가 선교 간증으로 은혜를 전했다. 그리고 회장 김회창 박사의 인도로 특별 기도회가 진행됐다. 김회창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행사에서는 미주3.1여성동지회(이연주 회장)가 특별 찬양을 하기도 했다. 끝으로 최훈일 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마치고 모든 참석자들이 식사하며 교제하였다.



기도회에 참석한 미주성결교회 교역자들

미주성결 교역자들 다양한 행사 준비 중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안신기 목사)는 지난 8일 LA 할렐루야교회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제39회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에 당선된 최경환 목

사에게 남가주 교역자들을 대표해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 단체는 오는 6월 유니온교회에서 교역자 탁구대회를 개최한다고 광고했다.

또 미주성결교회는 오는 7월과 8

월 두 차례에 걸쳐 보스톤에서 교역자 가족 수련회를 열 예정이다. 이 기간 중 목회자 자녀를 위한 아이비리그 비전 투어, 정교도 리더십 훈련 및 특강, 장학금 수여식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기독교한의사들이 5월을 맞이해 예배를 드렸다.

기독교한의사협 5월 정기예배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가 지난 13일 오후 4시 나성소망교회(김재울 목사)에서 정기예배 및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종오 회장이 대표기도한 후, 김재울 목사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한의사 송혁 원장이 “신경 차단 침술 요법”에 관해 5시간 동안 강의했다.

한편, 기독교한의사협은 오는 메모

리얼데이 연휴를 맞이해 27일부터 28일까지 필렌의 샘물가슴터수양관에서 1박 2일간 영성수련회와 8시간 한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보수교육에서는 김용훈 박사가 50년 임상을 통한 “한방 이비인후과 치료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회비는 1인당 20달러이며 가족 단위 참석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25일까지이며 등록 문의는 전화 213-500-6393로 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말씀 부흥 집회

“감동을 주는 시냇물들”

5월 18일(금) 저녁 7시 / 5월 19일(토) 새벽 6시
 5월 20일(주일) 오전 8시 / 10시 30분 / 오후 1시

갈보리믿음교회
 www.calvaryfaithchurch.org
 213-365-8880
 담임: 강진웅 목사

강사: 손병렬 목사
 포항중앙교회



이번 미주 제1기 두란노부부학교 수료자들



남가주벤엘교회에서 귀빈 초청 전도 행사가 열렸다.

“우리 가정도 변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두란노부부학교 개설, 34쌍의 부부 회복 경험

(1면에 이어) 5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또감사선교교회 (최경욱 목사 시무)에서 열린 부부 학교는 34쌍의 커플이 참여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금번 1기 부부학교는 한국과 캐나다, 미국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스텝으로 섬긴 부부들과 봉사자 25명의 헌신적인 섬김과 도움으로 가능했다. 부부학교 졸업자들로 구성된 스텝 중에는 가부장적인 배경에서 자란 남편과의 갈등, 많은 나이 차이,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자살까지 갔지만 부부학교를 통해 회복을 경험한 이도 있었다.

이성수 형제 부부는 “부부학교를 경험한다고 부부 싸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복될 수 없던 저희 가정이 회복됐으니 어떤 가정도 변화된다는 믿음으로 부부학교를 섬기러 LA까지 왔다”면서 “부부학교를 통한 섬김으로 저희 부부가 제일 큰 은혜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렇듯 부부학교를 경험하고 추천하고 봉사까지 자청하는 일들에 목회자도 빠질 리 없다. 이번 부부학교 봉사자로 참여한 한 목회자는 “부부학교 스텝으로 참여해 보니 평신도의 삶과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됐다”면서 “가

정의 아픔을 더 깊게 이해하고 중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금번 미주 1기 부부학교를 진행한 윤영희 자매는 “부부학교를 지난 10년간 진행했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수료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부들이 닫힌 마음을 열고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구정훈 아버지학교 본부장은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대안적인 역동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부부학교”라며 “앞으로 영아권과 남미까지 부부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선의 축복, 버림의 축복”

남가주벤엘교회 귀빈 초청 행사 열려

지난 어머니 날에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행사를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교회가 있었다.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남가주벤엘교회(오병의 목사)다.

남가주벤엘교회는 활발한 전도 운동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바르게 성도를 세우고 양육하는 건강한 교회다. 남가주벤엘교회는 1년에 두 번 씩 총력 전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봄에는 귀빈(VIP) 초청 전도운동이고 가을철에는 행복 나눔 축제다. 모두 복음을 전하는 전도 프로그램이다.

13일 귀빈 초청 전도 주일 오전 예배에서 오병의 담임목사는 “만선

보다 더 큰 축복(눅5:3-11)”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오 목사는 예수 믿고 복 받은 ‘만선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만선을 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만선보다 더 큰 축복은 구주를 만나는 것이며, 죄인인 자신을 아는 것이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푸짐한 선물 그리고 정성스러운 식탁이 준비됐으며 온 성도들과 새가족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강태광 편집위원

코이노니아 선교회, 일일관광과 노인잔치

공연, 선물, 식사 등으로 노인들 섬겨

사우스베이 지역 저소득 노인이 파드에 거주하는 노인들(평균 연령 85세)은 5월과 11월을 기다린다. 해마다 5월과 11월이 되면 코이노니아 선교회에서 일일관광 및 노인잔치 등 노인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코이노니아 선교회에서 제공하는 일일관광은 올해로 3년째, 노인잔치는 6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선교회는 지난 5일 가디나 시에 소재한 세 곳의 저소득 노인이 파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초청하여 롱비치 수족관으로 일일관광을 다

녀왔다. 10일에는 노인 130명을 초청하여 토렌스 시에 소재한 골든웨스트타워 저소득 노인이 파드에서 어머니날 맞이 노인잔치를 열어 드렸다. 클래식 연주자들로 구성된 윈즈오브조이 자선공연단의 공연,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 그리고 경품 등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과 순서로 노인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였다.

특히 이날은 40여 명의 중국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도 있었다.

이 선교회는 올해 11월에는 가디나 시에 소재한 저소득 노인이 파드

에 거주하는 노인 100명을 초청하여 추수감사절 맞이 노인잔치를 열어주려 계획하고 있다.

이날 코이노니아 선교회의 대표 박종희 목사는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한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을 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에게 분노하는 노인에게는 왜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노인에게는 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닌지, 주변의 노인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다른 노인들과 화합



5월 10일 어머니날 맞이 노인잔치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에 대해 활동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서 남가주 살롬교회(김준식 목사), 은혜로교회(김경환 목사), KPCA 서남노회

사회복지부, 원패밀리교회(장경일 목사),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안병권 회장), 조렌리 장로(코이노니아 선교회 이사), 이동호 장로(토렌스 제일장로교회) 등이 후원했다.

문의) 310-508-2733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결을 한 달에 남게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Irvine/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미디어벽,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65>

한 위구르 선교사의 눈물

필자의 입양종족은 위구르 민족이다. 입양종족이란 세계선교를 위해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미전도종족 중에 한 종족 이상을 택하여 그 종족(혹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 종족을 품에 두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십 년 전 처음 위구르를 갔을 때에는 바로 몇 달 전 위구르인과 중국 한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민족 충돌이 있었다. 1천 명 이상의 위구르 청년들이 중국 한족 공안에 의해 사살되었다. 위구르인들의 분노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때에 FO(단기선교)를 간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만난 위구르인들은 한결같이 착하고 친절했다.

위구르는 중국에 속해 있다. 국적은 중국인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독립을 원하고 있다. 중국에는 50여 개의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위구르에 자치 지역을 주어 그들이 나름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언어와 문화로 살아가게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한족들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억압받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 위구르에서 지난 16년 간 선교 사역을 하였던 S 선교사를 만났다. 위구르의 수도인 우루무치를 기반으로 아내와 자녀 둘 그렇게 네 가족이 선교사 가정을 이루어 참으로 열심히 하였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느닷없이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쳐 S 선교사를 끌고 가서 밤샘 심문을 한 끝에 즉시 떠나라는 추방명령을 했다. 공안들이 S 선교사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10분 시간을 주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게 했다. 신분증과 여권 등을 챙기고 그간의 사진들을 챙기려는데 사진들은 공안이 압수하였다.

16년 간을 살았던 터전인데 어찌 10분 안에 가져갈 것들 외에 귀한 것들이 없었을까? 옷가지,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가구, 액자, 부엌용품 등등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고 정말 가방 하나만 들고 공항 차장으로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한쪽 구석에는 그렇게 잡혀 추방명령을 받고 끌려온 각 단체의 선교사들이 무려 50여 명이나 있었다. 대부분 한인 선교사들이었고, 그들은 한결같이 어안병병한 상태로 믿겨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비행기표를 산다는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돈들은 다 빼앗기고 한국이 아닌 가장 가까운 나라인 카자흐스탄으로 그들은 날아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흩어졌다.

S 선교사는 가까스로 한국의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아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모든 가족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쏟았다 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6년간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땀과 눈물을 쏟아부어 세웠던 가정교회들, 그 영혼들, 제자들, 그 사람들이 어찌 되었을까,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고, 지난 세월의 일들이 필름처럼 돌아갔다 한다.

그 말을 들으며 필자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 그의 마음을 이해해 보고 싶었으나 그의 그 깊은 마음의 골을 담아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 민족을 품고 목숨을 바쳐 사역하던 우리의 선교사들이 일시에 대거 추방되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선교의 현장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어찌 기도의 무릎을 아낄 수 있으리.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깨어진 행복과 망나니 삼촌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북한 억류자들이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참 좋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관점잡발 봄바람이 북한 동포와 이산가족들에게 진정한 봄을 가져다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김정연과 북한 정권의 착한(?) 행보가 생경합니다. 그들 손에 죽어간 수많은 동포들과 목하고 난을 당하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고모부와 형을 무참히 죽인 김정연을 일부 언론과 정치권, 연예인들이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에 필자는 불편함과 불안감이 듭니다. 특히 이미 평화 상태에 돌입한 듯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악몽 같은 추억이 떠오릅니다.

고향 친구 삼촌은 '망나니 삼촌'이었습니다. 이름이 있지만 온 동네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히면 또래들과 싸웠고 친형님들을 때리고 형수들에게도 행패를 부렸습니다. 또 조카들 대학 입학금으로 장롱에 숨겨둔 돈을 수차례 훔쳤습니다. 삼촌의 만행을 참다못한 동네 어른들이 멍석에 말아서 방망이질을 하는 멍석말이를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멍석말이 위협에도 효과가 없던 삼촌이 갑자기 몸조심을 했습니다. 친구 폭행을 동네 어른들이 신고해서 읍내 경찰서 형사과에 연행되었습니다. 친구간의 폭행이라 훈방으로 곧 풀려났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망나니 삼촌은 거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궁금해 하던 이유를 이장님이 알려 주셨습니다. 이장님이 전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삼촌이 중학생 시절 싸움질을 하다가 선도부장에게 혼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선도부장을 몹시 무서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도부장이 읍내 경찰서에 형사로 근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도부장 선배를 형사로 만난 후 삼촌이 달라졌습니다. 고분고분하게 형님네 일을 돕고 할머니 말씀도 경청하였습니다. 싸움질도 그쳤습니다. 완전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삼촌의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동네에 시끄러운 싸움이 끝났습니다. 싹싹한 젊은이로 거듭난 삼촌의 변화는 온 마을의 화제였습니다. 힘겨운 가을건이에 삼촌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삼촌을 보고 어른들은 새사람이 되었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삼촌을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이 평화롭고 가을이 행복했습니다.

삼촌이 중학생 시절 싸움질을 하다가 선도부장에게 혼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선도부장을 몹시 무서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도부장이 읍내 경찰서에 형사로 근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도부장 선배를 형사로 만난 후 삼촌이 달라졌습니다. 고분고분하게 형님네 일을 돕고 할머니 말씀도 경청하였습니다. 싸움질도 그쳤습니다. 완전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니다. 친구 녀석도 오랜만에 삼촌 자랑을 했습니다. 삼촌이 사다준 통닭과 국화빵 자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삼촌이 준 용돈을 자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평화와 행복이 깨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을건이 후 곡식은 농협에 팔고, 과일도 장날에 팔아 돈이 생겼습니다. 모처럼 마련한 목돈으로 풍요로운 늦가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에 어른들이 모여서 웅성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망나니 삼촌이 진짜 정신을 차린 줄 알고 경계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세 형님들 곡식을 팔아 마련한 목돈을 모두 들고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세 형님 맥들은 거의 초상집이었습니다. 1년 농사가 헛수고가 된 것은 물론 각급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입학금과 등록금이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팼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던 친구 아버지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울러 우리 또래의 조카들이 삼촌을 비난하며 황당해 하던 것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후 망나니 삼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망나니 삼촌의 변화를 기뻐하며 좋아했던 마을의 평화와 행복은 그렇게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그 겨울은 망나니 삼촌에 대한 분분한 해석들이 온 동네 사람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양발 봄소식이 요란한 계절에 그 아픈 겨울의 추억이 앞글게 떠오릅니다.

협성 총동문회 “예수와 함께 사명 감당하자”

미주 협성 총동문회(회장 곽춘식 목사)가 미주 자치연회 기간 중 '미주 협성 모임 2018'을 지난 5월 9일 알래스카 앵커리지 예광교회(담임 정용국 감리사)에서 “예수와 함께 사명(Mission with Jesus, 마 28:19-20)”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미주 협성 총동문회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명 집회와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동문 간의 우애와 사명을 재확인했다. 집회에서는 곽춘식 회장의 사회로 윤보환 감독(중부연회)이 '예수와 함께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미주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든 동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특별히 남북 관계의 앞날과 감리교회가 주님의 복음 사명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했고 조현영 목사



미주 협성 총동문회 총회 및 모임이 지난 5월 9일 열렸다.

(남가주 큰빛교회)가 마침 기도를 했다.

특pecially 동문 중 이번 미주 자치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정삼열, 박동규, 이기정 동문에게 목사 안수 축하패를 전달하고 또 이번 연회에서 사역을 정년 은퇴한 김연주 동문에게 은퇴 축하패를 전달했다. 한편,

미주 협성 동문들의 사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멕시코 지진 현장을 방문해 도운 윤보환 감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총동문회 총회에서는 현 곽춘식 회장(팸파제일감리교회)이 유임하게 됐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컬러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원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가정천국을 위한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 12:49-5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누가복음 12: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52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돌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은 가족이 구속사관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이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늘 소망 영생 복락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되어진 가정을 가정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의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상하로 이루어진 십자가 형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죄악을 허물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이루어진 십자가 형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타산의 감정으로 맺힌 원한이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서 누구와도 막힘 없이 교통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과 개통될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도 원만한 화목의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십니다. 이 불에 대해서는 성령의 불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심판의 지옥 불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태복음 3:10-13을 보시면 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마3:10)” 했는데 여기서 열매맺지 아니하는 나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불은 지옥불에 대한 예언적 경고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3:11)”라고 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예수님이 던지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령의 불에 녹아져서 잘못 살아온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하며 자복하는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을 따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곧 성령이 주시는 불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성령의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의 불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불로 말미암아 다니는 지옥불에 시달릴 폐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9절의 불은 지옥불과 성령의 불,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불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우침에 따라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그 모든 불의와 죄악을 소멸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심판의 불로 임하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폐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두 가지 불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과정에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지난날의 잘못된 죄악을 완전히 태움 받게 되는 사람은 다시 지옥불에 던져질 폐단이 없게 된다는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롬2:5)”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집은 성령의 불을 원하지 않는 고집이 되고 그 고집은 훗날에 가서 피할 수 없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가정구원을 통한 가정천국을 이루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엔 인생(人生苦)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에 꾀임에 더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값으로 낙원이었던 에덴에서 추방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죄 값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고 종일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도 제한되어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인류 최초의

가정은 죄로 인하여 실패했고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를 전가시켜 줌으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값으로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꽃에 시달리는 심판의 불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49절에 우리의 가정을 두시고 예수님의 걱정스러워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폐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지옥 같 인생들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거듭남으로 새롭게 되어 하늘나라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동정 탄생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1절에 보면 분쟁케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는데 왜 이같이 갈등하고 다투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 가정에 다섯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고 악령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받지 못한 세 사람은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 악령받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44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적인 소속이 악령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를 전가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야 했고 죄인은 그 근본이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악령의 지배하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받은 두 사람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들의 목적은 더욱 많은 영혼이 구원 얻어 하늘나라 가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받지 못한 세 사람과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서 부딪히고 갈등하며 서로 다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쟁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악령은 죽이고 실패하게 하며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받은 두 사람이 나머지 세 사람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해서 그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구원 얻게 되면 비로소 그 가정은 하나의 성령을 모신 가정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생지옥과 같았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을 바꾸어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참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천국을 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 국 선 교 설 교 | | | |
|--------------|-------------------------------|--------------|---|
| TV 한국방송 설교 | | 한국 신문 설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경복 기독교 신문 | 3면 설교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 외 선 교 설 교 | | | |
| TV 미국방송 설교 | |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90 |
| CTS TV |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AM1190 |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AM1190 |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
| 미 국 신 문 설 교 | | | |
| 기독교일보 | 5면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Since 1999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여름학교 모집
6/4 - 7/27



무료 앱 다운로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90점 기록 (전미주 평균 1,06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FABIEN FINANCIAL INC.

무담보 비즈니스 론 Fabien에 맡기시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용자, 쉽고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은행에서 비즈니스 용자를 거절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 No 크레딧 Bad 크레딧, 용자 문제 없습니다.
- ✓ 세금보고서가 없이도 용자가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누구나 용자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매매 용자

10K~500K

까지

캐쉬 어드밴스

SBA 용자

상업용 부동산

하드머니 [플리핑 용자/Flipping Loan]

www.FabienFinancial.com

금융 전문가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 714.264.7288 | 844.380.9990

fabienfinancial@gmail.com

6131 Orangethorpe Ave #400 .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Financial Freedom을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Business Service

- 주식회사 설립
- 비즈니스 크레딧 Build Up
- 상업용자
- 비즈니스 매매 상담

Real Estate Service

- 리스팅 전문
- Flipping House 투자상담
- Flipping House 용자상담
- Hard Money



Love Foundation
LAW GROUP

러브파운데이션

LDA#315 / Bond 가입업체 / 714.227.7358
6131 Orangethorpe Ave. #400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Premier Services Realty DRE #01895705

Dr. David Oh 법학박사 데이빗 오

- Azusa Pacific University 졸업
- Azusa Pacific University 석사
- Graduate School of Houston 박사
- Global Financial Service Certificate 수료



조지아센추럴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 및 이사장 이취임식

조지아센추럴대학교 학위수여식 및 이사장 이취임식 가져

“하나님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라”

조지아센추럴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 및 이사장 이취임식이 지난 12일 오후 6시 대학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명, 석사 9명, 박사 6명 등 총 17명이 졸업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사장상, 총장상, 성적우수상, 동문상, 동남대회장상, 오산장학회상 등을 받아 기쁨을 더 했다.

김창환 총장은 “공부할 때와 사역 현장은 많이 다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을 갖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거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학교가 1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사 제목을 많이 찾았다. 잘못된 부분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게 됐다. 비록 졸업생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 말뿐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사장 이취임식에서는 2대 이사장으로 수고한 김선배 이사장에게 감사패가,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문성록 이사장에게 취임패가 전달됐다. 문성록 이사장은 종신대 신학대학원, 경희대 교육대학원, Southern California Seminary, Oral Roberts University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필라델피아교회협의회 회장, 필라델피아 기독교방송국 사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KAPC)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성록 이사장은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 학교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그 기대에 맞게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오랜 기간 기독교교육학을 가르쳐 온 조현성 목사가 부교수로 승진했으며,곽계일,김용환,김영무 목사가 신임 조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

앤더슨 김 기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워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워싱턴 주 구국기도회 이정훈 교수 초청 특강

오는 6월 17일 오후 6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워싱턴 주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으로 기도하는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회장 권준 목사)와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회장 원호 목사)는 오는 6월 17일(주일) 오후 6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이형석 목사,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에서 이정훈 울산대 교수(법학)를 초청해 연합기도회 및 특강시간을 갖는다. 연합기도회는 ‘고국의 복음 통일과 열방을 향한 선교 완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된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권준 목사는 “역사적으로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에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특별히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와 만남이 성사되고 이제 바른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고국을 사랑하는 일이며,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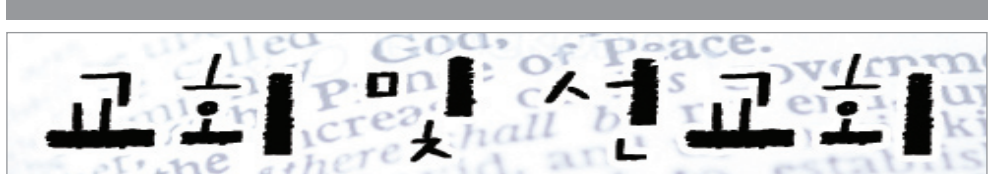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원호 목사는 “이번에 연합으로 하는 기도회는 큰 의미가 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관과 고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할 것”이라며 “이정훈 교수를 통해 세계사의 흐름이 결국 선과 악의 대결 구도였고,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빛된 진리를 호도하고 유물론적, 인본적, 혼합주의 등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교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출

신으로 불교에서 개신교로 회심한 후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불교에 입문했고 군승으로까지 활동했던 경력으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함께 목회자들을 폄하하고 의도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참 진리에 대한 도를 깨우치고 그가 배우고 연구한 법과 철학 그리고 역사적 논증을 통해서 시대의 사유를 기독교 역사로 쉽게 풀이하면서 현재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파장과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연합기도회를 준비하는 박상민 목사는 “정말 보기 드문,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강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하나님께서 사물을 직접 전도하여 그 시대에 필요한 사도 바울로만 드셔서 복음을 세상에 알리셨듯,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던 최고의 법 역사철학자를 만나주셔서 지금과 같은 진리의 해체의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셨다. 이번 기도회는 전 세대가 참석해 복음의 진수와 핵심을 그들의 눈높이로 들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빌리기도회는 지난 2013년 5월에 창립하여 매년 4차례(삼일절, 6·25, 광복절, 추수감사절)에 개최되었고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는 2007년 9월부터 격월로 지역을 순회하며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다.



| | |
|---|--|
|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일-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대를 양육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p> |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
| <p>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8:00</p> <p>새니킴 담임목사</p> <p>LA씨티교회</p> <p>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p> |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이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
|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 <p>주일 오후 2: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눔과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p> |
|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김문수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
|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야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헌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 <p>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죽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종보기도회(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정병호 담임목사</p> <p>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2-7240 Email: lahe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p> |
| <p>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발기기도회 오후 9시</p> <p>박은중 담임목사</p> <p>에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p> <p>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델리안예배 (소매세일) 오전 11:0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p> <p>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p> |
| <p>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박효우 담임목사</p> <p>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p> <p>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p> |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
|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정학 지역, 십자가 지역</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교회 블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p> |
|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곽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p> | <p>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교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이순환 담임목사</p> <p>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p> <p>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p> |
|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장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
|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
| <p>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p> | |
| <p>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p> <p>이희철 담임목사</p> <p>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p> <p>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p> | <p>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p> <p>신용환 담임목사</p> <p>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p> <p>2727 N. Dufferin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p> |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 신앙과 관련된 부서 신설 “백악관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 갖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관료들에게 백악관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갖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6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와 관련된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종교 단체들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부서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정부 내에서 강력한 지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국가 기

도의 날을 맞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면서, 미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종교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신앙 및 기회 계획’(White House Faith and Opportunity Initiative) 자문위원 자리가 신설됐다. 신설된 부서는 다른 행정부서들, 연방기관들과 소통해 나가며 공동체와 신앙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가톨릭 레지스터는 전망했다.

강해진 기자



윌 스미스 ©윌 스미스 인스타그램

“두려움 극복한 비결은 하나님” 배우 윌 스미스, SNS로 하나님 전해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 윌 스미스가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수많은 팔로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스미스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통해 14,000피트(약 4.3km) 높이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영상에서 스미스는 “위험 속에서 죽음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할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극점에 있을 때가 가장 공포심이 작아지는 순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다른 측면에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놓아두셨다”고 덧붙였다.

스미스는 아내 자다 판케트 스미스, 아이들과 함께 휴일을 맞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두바이 스카이다이빙을 찾았다. 앞서 그가 이곳을 혼자 방문했을

때에는 최소한 5년 이상 스카이다이빙을 했었다고 한다.

스미스는 지난 2015년 영화 ‘컨쿠전’ 홍보차 크리스천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나는 영화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삶의 주제와 잘 어울릴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침례교 전통에서 자란 스미스는 어릴 때에는 가톨릭 학교를 다녔고 자신의 할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할머니는 내가 삶에서 만난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특별한 분이였다. 그분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행복해 보이셨고, 마치 천국에 대해 기대하시는 것 같으셨다”라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폭탄 테러

인도네시아 제2도시 수라바야 시내에서 성당과 교회를 노린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13일(현지시간) 오전 자바주 수라바야 구부 지역의 가톨릭 교회에서 괴한이 자살폭탄을 터뜨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목격자들은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성당 경내로 들어간 직후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전 8시경 디포노고르 거리와 아르조노 거리에 있는 교회 두 곳에서 잇

따라 폭탄이 터졌다. 목격자들은 디포노고르 거리의 교회에서 보안 요원이 얼굴을 가린 채 경내로 들어오는 여성을 제지한 직후 폭탄이 터졌다고 전했다. 애초 2명이었던 사망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은 인도네시아 IS 연계 테러조직이 이번 연쇄폭탄 테러의 배후일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또 사건 직후 수라바야에 있는 모든 성당과 교회에 미사나 예배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일대에 대한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

강해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서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O.C. /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10: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청오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10: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베델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전 1:30(청년 토목예)
FAMC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한요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미루라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일으켜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남가주 LA 에 위치한 한길교회(The Way Church)는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한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5년 이상 목회경험(부목사/행정/교육목사 포함) 정규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M Div. 학위 취득자 PCA에 가입되었거나 가입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이력서
본인 소개, 신앙고백서 / 목회 비전
1년 이내 두편의 설교(최소 한편은 동영상)
목사 안수 증명서, 대학 및 신대원 졸업 증명서
목회자 2명의 추천서(preferred now, or later upon request)
제출서류 마감일 5/31/2018
- 제출**
thewaychurch.calling@gmail.com

모든서류는 PDF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한길교회 청빙 위원회

4050 West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담임목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참되고 신실하며, 성경적 개혁 신앙을 갖춘 담임목사로, 영성, 인성 및 믿음의 본이 되며 젊은 세대 부흥과 세계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되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써 온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지원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M.Div. 학위 취득자
3. 목회경력 :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5년 이상(미국 목회 3년이상 경험자)
4.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선호
5. 미국 내 목회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2. 목회철학과 비전 및 이민 목회의 사명 소견서
3.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가족소개, 사진)
4. 대학 및 신대원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5. 최근 1년 내의 2편~5편의 설교 동영상
6. 목회자 2명의 추천서

제출 마감일
2018년 6월 15일(금)

제출처
oc1newpastor@gmail.com

- 기타사항**
1.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PDF or WORD)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캘리포니아 엘바인에 위치하며, 지난 44년동안 "주님사랑, 영혼사랑, 인재양성, 복음전파"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미국 남침례교단에 속한 엘바인 침례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 5대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 자격조건**
1. 정규 목사교육과정(M. Div.)을 이수하고,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인 경우 미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남침례교단의 교리와 신학배경을 6개월정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3. 목사안수후 5년 이상 담임목사 또는 장년사역 부목사로 헌신하신 분.
4. 이중언어가 가능한 분 선호 (한국어/영어)
5.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로 근로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3개월내 촬영한 사진 첨부)
2. 학위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설교 CD/DVD/USB. 2개 또는 동영상 주소
4. 목회 비전 (목회동기 및 목회철학) 및 계획
5. 본인, 사모 및 가족 소개서 (신앙관, 목회경력, 가족사진 포함)
6. 추천서 2매 (각 추천인의 밀봉날인)

접수마감: 2018년 6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심사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 통지 해드립니다. 접수는 이메일(pdf.file)만 받습니다. (전화 문의 사절)

제출처
-엘바인 침례교회 청빙위원회, Irvine Baptist Church,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Email: Pastoralcallibc@gmail.com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엘바인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857-9425 www.irvinechurch.com

존중하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존중하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을 존중해 보십시오. 우리의 존중을 받는 분도 행복을 경험하지만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존중의 신비입니다. 존중은 씨앗과 같아서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멸시를 심으면 멸시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또한 불행해집니다. 남을 멸시하면서 자신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멸시도 씨앗과 같아서 멸시를 심으면 멸시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날마다 존중을 선택하고 심어야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좋은 것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삼상 2:30).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멸시했던 엘리와 그의 자녀들을 심판하셨습니다(삼상 2:31-34).

존중이 가장 빛을 발하는 때는, 존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존중할 때입니다.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까지도

존경하는 것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존중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지혜입니다. 한나는 그 당시에 존경받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기쁨 부어 세우신 제사장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빌어주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습니 다. 한나의 존경을 받은 엘리는 마음을 열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무엘을 낳았습니다(삼상1:20). 하나님은 존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존중하는 한나를 돌보셔서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덩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삼상2:21). 존중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관하지 말고 존중이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심지어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까지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존중해야 할 분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엢 6:2-3). 우리는 주위에서 부모님께 상처를 받아 부모님을 결코 용서하

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까닭입니다. 부모님이 명령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존중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지혜가 없어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대하고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보배처럼 여기십니다(신26:18).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배롭게 여기는 것처럼 보배롭게 여겨야 합니다. 결혼한 분들은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부부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시16:3).

존중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것은 없습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불러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아침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꾸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00세 시대와 해외선교



정운길 선교사
실버선교훈련원

2020년이 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가 9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상당수 사람들이 100세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한다. 100세 시대의 노인들은 '보다 건강하게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계층'이라고 전문가들이 정의를 내렸다고 한다. 100세 시대 패러다임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다.

사회의 약자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대상이었던 시니어들이 보다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자는 그들이 선교에 적극 참여하길 권한다. 젊었을 때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일 중심적인 삶, 긴 노동 시간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해 주지 못했지만 은퇴 후 수명이 늘어날수록 생애 중 일터에 있는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불협화음을 내는 가족 간의 문제들도 역시 선교에 몰

입하면 자연 해결될 것이다. 아울러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더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부부간의 갈등을 없애는 방법도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선교지에서 부부가 의기투합하여 같은 목적의 일을 하는 것도 부부갈등은커녕 오히려 행복을 가져온다. 선교지에 가면 부부는 일심동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 일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일도 우리가 평생 동안 사랑을 고백했던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구원의 일이라면 일하면서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자립적 삶이 100세 시대에 대두되는 문제이다. 시니어들은 노후 대책의 수단으로서 소일(소일)은 물론 손쉬운 자금자족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다던 그 일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누군가가 적절한 인센티브만 제공한다면 자신의 노력과 노동으로 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해외선교라는 명제 하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한다면, 이곳에서 하루 밥 세 끼를 먹으나 선교지에서 세 끼를 먹으나 별 다를 바가 없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곳에서보다는 선교지에서 먹는 것이 더 웰빙 음식이 아니겠는가?

영적 은사를 따라 섬기자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옛날에 동물들이 모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수영, 달리기, 오르기, 날기 등의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과정을 필수적으로 다 이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수영에 우수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감사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르기에는 겨우 통과점수만 얻었고, 달리기 성적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는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물갈퀴 발이 닳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달리는 조금 개선이 되었지만 그의 전문이었던 수영은 겨우 평균 점수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토끼는 반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했습니다. 그러나 수영은 나제 점수였습니다. 그는 수영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물에서 보내었고, 그 결과 다리가 부어서 달리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람쥐는 오르기에는 가장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지만 날기수업에는 항상 좌절했습니다. 좀 더 높이 날기 연습을 하다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발목을 다쳐서 이제는 나무에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반면에 독수리는 공중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물에만 들어가면 그의 깃털이 무거워져서 가라앉기 일쑤였고, 그가 달리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동물들은 각각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데, 자신에게 맞지 아니한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노력에 비해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자의 모습대로 섬길 때 가장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은사를 따라 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탐내거나, 자신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역의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자신의 모습 그대로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사역의 열매가 가장 아름답고 빛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본질상 독자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

마크 L. 스트라우스의 <네 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

멋진 표지의 이 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기록해 놓은 네 편의 고대 문서에 대해, 그리고 그 네 복음서가 그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는 ‘입문용 개론서’이다. 저자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비평이라는 방법을 따르면서도 복음에 합당한(복음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책을 만들고자 했다”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관찰자로 역사에 다가가는 이는 아무도 없다. 때문에 이 책을 아무 전제나 관점 없이 쓴 교과서라고 여긴다면 순진한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네 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
마크 L. 스트라우스 | 박규태 역
성서유니온 | 1,010쪽

더불어 “이 책은 오늘날 활용할 수 있는 문학과 역사의 도구 및 자료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을 활용하려는 비평서이다. 아울러 정보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제시하려 노력하면서, 문제를 숨기거나 결과를 임의로 선택하여 조작하려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또한 이 책은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복음서를 인간이 쓴 문서이자 성령에 감동하여 쓴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사복음서의 장르를 ‘역사서, 내러티브 문학, 그리고 신학서’로서 ‘신학적 관심사가 만들어 낸 역사 내러티브’로 분류한다. 사복음서는 네 명의 저자가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해 나름의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려 쓴 것이고, 도마복음 등 나머지 복음서가 정경으로 인정되지 못한 것은 “기록 대부분이 신뢰할 수 없는 후대의 구성물이요 위경(Pseudepigraphic)이며, 2세기 영지주의 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더 큰 가치를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는 오늘날 독자들에게 ‘수직·수평으로 복음서 읽기’를 제시한다. ‘수직으로 읽기’는 사복음서 각 이야기를 완전한 것으로 존중하고, 줄거리를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다. 대안으로 사복음서를 함께 묶어 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조화를 꾀하는 접근법(harmonistic approach)’이 있으나, 각 복음서가 영감을 받아 제시하는 독특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이와 달리 ‘수평으로 읽기’는 네 편의 복음서를 나란히 비교한 ‘대조표’를 사용해 각 복음서가 서술한 기사를 대조해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복음서들을 비교해 각 저

자의 독특한 신학 시각을 밝혀낼 수 있다.

책 1부(1-3장)는 앞의 내용에 이어 각종 비평방법을 소개하고, 2부(4-6장)는 복음서의 역사적·종교적·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핀다. 3부(7-10장)에서는 사복음서 각각을 문학적 특징과 플롯, 신학적 주제와 목적, 역사적 배경, 오늘날의 읽기 등으로 분석한 후 각 저자가 그린 ‘예수의 초상’을 드러낸다. 마가 복음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은 ‘메시아’, 누가복음은 ‘만민의 구주’, 요한복음은 ‘아버지를 나타낸 아들’이다.

마지막 4부(11-20장)는 사복음서를 통해 제시된 ‘역사 속 예수’에 대해 탄생부터 사역의 시작, 메시지, 기적, 말씀과 행동, 죽음과 부활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이들 중 ‘예수의 죽음’에 대해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정치와 종교 중 어떤 이유인지 묻는 것은 사실상 1세기 유대교를 잘못 표현한 것”이라며 “1세기 유대교는 종교와 정치가 한 몸이었다. 예수의 죽음은 분명 그 시대의 종교 및 정치 권력이 예수가 위협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한다.

또 예수의 마지막 만찬 때와 마가 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셨을 뿐 아니라 이 죽음이 일어나게 움직이셨고, 이 죽음을 이사야 53장이 말한 고난받는 중에 비추어 당신 백

성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사 행위로 해석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글을 마치면서 “예수가 복음 전승 전체에서 드러내시는 운명과 권위의 비범한 의미를 고려할 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상대로 펼쳐 보이시는 목적의 중심으로 여기셨다”며 “나아가 증거는 예수가 무덤 안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셋째 날에 살아나셨음을 일러주는데, 이는 자신이 아훤가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예수의 주장을 확증해 준다”고 정리한다.

더불어 “우리는 방금 제시한 두 결론을 통해, 역사 연구에 입각한 결론과 신앙고백 사이에서 늘 이리저리 움직이는 경계를 분명하게 건넌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선을 멀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예수, 그리고 예수를 해석했던 복음서 저자들이 한 주장을 단순히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연구하지는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본질상 독자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한다”고 고백했다.

분량이 두껍고 역사·문학 비평을 기초로 하지만, 다양한 컬러 사진과 지도, 도표가 있고, 각 장이 시작할 때마다 중심 키워드를, 그리고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요약, 토론과 연구 등을 실어놓아 별다른 신학적 배경이 없더라도 혼자 공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예수의 일생과 십자가와 부활은 허구’라는 주장에 반박할 근거들을 제공하는, 교과서 또는 참고서 형식의 책이다.

저자는 1993년부터 미국 샌디에이고 베델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로 예수와 복음서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NIV 번역을 감독하는 성경번역위원회 부위원장이다. NIV 스테디바이블과 존더반 신약주석 부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여러 주석서 편집자로 활동했다. 국내에는 <강해로 푸는 마가 복음: 존더반 신약주석>이 소개되었다. 이대웅 기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꿈 결국 모래성

한양훈 목사의 희망칼럼 세 번째 이야기



마음 그릇에 담는다
한양훈
유하 | 220쪽

르다는 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개혁자들은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적이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데 생각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한다.

또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목사이다. 그래서 개혁자들도 훌륭하고 신학도 귀하지만, 신학도 개혁자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신학은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세계를 다 포용할 수도, 다 설명할 수도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석을 앞두고 쓴 ‘빈집’에서는 “빈집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비어 있는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셨는데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음을 실천한 훌륭한 믿음”이라며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으면서 빈 마음이라면 그것은 ‘텅 빈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텅 빈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고, 잘못하다가가는 바람에 물고 온 쓰레기도 쌓이며, 심하면 사탄이 텅 빈 마음을 노리고 찾아와 마귀 소굴로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탈북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우리는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새 삶을 시작하도록 여러 면에서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며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과거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이고,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마지막 글, 2018년을 앞두고 쓴 ‘헛된 꿈’에서는 “우리는 어떤 꿈과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를 정직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성도라 해도 잘못된 사상과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다.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길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꿈은 결국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내려놓고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권면한다. 새해 계획을 세운지 5개월, 한 해의 절반 가량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돌아볼 만한 이야기이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위턱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오직 하나...
당신만을 위한 **맞춤클럽**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위턱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월요일~금요일 9:30~7:00 토요일 사전예약 Only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무료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어움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내 고려대 안암병원내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 | | | | | |
|-----|-----|-----|-----|-----|---------|
| 산성 | 중성 | | | | 알칼리성 |
| 3.5 | 6.0 | 7.0 | 8.5 | 9.0 | 9.5 |
| | | | | | 셀라케어 10 |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통곡의 벽의 모습



이곳을 방문한 군인들의 모습



통곡의 벽에 꽃혀 있는 소원 쪽지의 흔적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74)

영원한 유대인의 성지- 통곡의 벽

성전 건축의 역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산(Mount Moriah, 당시는 우루살렘[Uru Salem]으로 불림)으로 올라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의 헌신과 충성을 기쁘게 받으셨다.(창 22장)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면서 그 때부터 그 땅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무슬림과 기독교인들 역시 모리아 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게 된다.

다윗은 오랜 내전과 블레셋과의 전투 및 주변국과의 전투 끝에 안정된 통일왕국을 형성하였고 이제 그의 평생의 소원인 성전을 지으려고 모리아 산에 있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오십 세겔에 사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다.(삼하24장 18-25절 참조) 이런 성전 건축의 마음을 주신 것과 소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삼하7장 참조) 오늘날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야 가능하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

윗은 소원을 이루기 원하였으나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영광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게 된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그가 왕이 된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다.(왕상6장 참조) 얼마나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였는지 모른다.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끝낸 솔로몬은 내부 장식에도 엄청난 재물을 투자한다. 그리고 언약궤는 드디어 오랜 방랑 끝에 성전으로 자리를 찾아간다.(왕상 8장 참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끝났지만 솔로몬의 결정적 실수는 성전 건축 시 두로와 시돈 왕들의 도움과 이방인들이 드리는 재물을 혼합하여 성전을 건축하므로 아무도 모르게 성전 안 마당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성전 마당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두 기둥을 세우지만 이것조차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사상인 오벨리스크의 흔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한

다.(왕하 25장 참조)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지 양식과 규모와 화려함에 있지 아니함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건축하는 자들이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후일 유대인은 고레스 왕 원년에 귀환하지만 솔로몬 시대와 같은 화려한 성전은 다시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주위의 도움 없이 믿음으로 지어진 성전은 기원전 37년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 제 2성전이라는 새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초라하기 그지 없는 모습으로 지내왔다. 헤롯에 의하여 46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성전은 지어지지만 이 성전마저 기원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철저히 부서진다.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높이 19m, 지하에 묻힌 기단부로부터는 32m)은 성전의 서쪽 벽 부분으로 로마군이 성전을 파괴할 당시, 어디선가 비둘기들이 수없이 날아와 구구 울면서 제발 이것만을 부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그 벽(돌의 무게는 큰 것이 7.3t, 작은 것이 1.8t)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진짜 이 벽만 남은 이유는 로마군대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기원후 65-68년 사이의 대반란은 유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끝났지만 다시금 계속되는 황제숭배와 이방신에게 드

리는 제사와 함께 유대교에서 행하여야 하는 종교생활이 박해를 받게 되자 재차 반란이 일어난다. 두 번째 반란은 기원후 132-135년 사이에 일어나는데 반란의 주동자는 '바르 코크바(Son of Commandment)'였다. 로마군은 황급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면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에어리어 카피톨리나(Area Capitolina)로 바꾼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이산(디아스포라)되는 민족 최고의 비극을 겪게 되고 나라는 없어지고 민족만 남게 되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티나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이름은 후일에 팔레스타인이 된다. 팔레스티나는 블레셋에서 나온 말로 결국 유대인들의 대대적 원수였던 블레셋을 이스라엘 대신하겠다는 로마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나라 없는 서러움

나라 없는 백성들의 비참함을 아는가? 유대인들은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기 원했다. 가장 좋은 장소는 역시 성전의 일부였던 서쪽 벽이다. 그래서 역대 통치자들에게 탄원한 결과 성전 파괴일 하루만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허락받았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날 하루 기도하러 몰려들었고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저녁이면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자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헤어져야 했다. 그곳에 남아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성전 서벽은 통곡의 벽(코엘)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1948년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이곳

은 여전히 무슬림의 땅 요르단이었다가 1967년 육일전쟁의 결과로 이 벽을 찾게 되었다.

처음에 이 벽을 찾아왔던 군인들이 울면서 이 벽에 입 맞추는 모습이 지금도 오래된 영화처럼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다. 요르단 사람들이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점령한 후 집들을 정리하고 지금의 광장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통곡의 기도

영원한 성지를 향해 나아가는 유대인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각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이곳을 찾아와 제3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한다. 순례객들도 예외 없이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후 쪽지를 벽 틈에 끼워 넣기도 한다. 이 쪽지들은 한 달에 한번 수거하여 하늘로 올려 보낸다. 예나 지금이나 소원이 건강, 결혼, 자녀, 사업 등이고 이러한 각종 소원들이 담긴 쪽지들이 지금도 빼곡히 벽 틈을 차지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한국인 순례객들이 요즘 이스라엘 선교와 평화,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쪽지를 넣어두고 온다는 것이다. 가끔씩 성전 산 위쪽에서 아랍 사람들이 돌을 던져 기도를 방해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왼쪽으로 들어가서 벽 앞에서 기도한다. 남자는 입구에서 키파(Kipa, 작은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하며 나올 때는 뒷걸음쳐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기도하자. 주님께서 오셔서 멸망의 가증한 것들을 깨뜨리고 영원한 교회를 통곡의 벽 위에 세우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선교해야 할 것이다. (계속)



기도하는 정통 유대인들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여름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길) 앞, (학문의 길) 앞, (십자가의 길)

본교 지원시 특전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6월 21일 개강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
 우리의 굳어버린마음을 여는 곳,
 꿈을 잃은 마음을돌이킬 수있는 곳,
 그리하여 충만한삶을 회복하는 곳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주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세요

주일 예배 | 오후 2시

육신적 질병과 영적 치유함을 통하여
강건함을 나눠 드립니다

수요 치유 예배 | 오후 7시 30분

담임목사 :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Tel. 213-272-6031

칼 바르트에겐 자존하신 하나님이 없는가?

서철원 · 오영석 · 소강석 · 이형기 박사 토론



토론에 나온 소강석 · 함세웅 · 박종화 · 서철원 · 이형기 · 오영석 박사

‘현대신학에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신학자와 목회자, 기독교와 천주교,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마주 앉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가, 발제는 서철원 박사(전 총신대 신학대학원장)가, 논란은 오영석(전 한신대 총장)·이형기(장신대 명예교수) 박사·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함세웅 신부(전 가톨릭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먼저 ‘현대신학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서철원 박사는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바위 밑에 있는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칸트의 인식론은 신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학도 학문과 지식이 되려면 경험에서 재료가 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 박사는 “그래서 근세신학의 아버지인 쉐라이어마허는 인간의 종교 혹은 내적 경험에서 신에 대한 지식을 구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을 인간 의식의 변형으로 완전히 바꾸어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을 신학에서 완전히 제거했다”고 했다. 이어 “20세기에 들어와서 칼 바르트, 틸리히, 몰트만, 리아너도 신학을 인간 의식의 변형으로 만들어 신학에서 창조주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들 현대신학자들이 전개한 신학의 핵심을 분석한 서 박사는 특히 칼 바르트에 대해 “그의 신학에 의하면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일 뿐이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르트의 신학에

는 하나님은 없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는 쉐라이어마허의 가르침을 따라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자존하신 하나님도 없애버렸다”고 했다.

그러나 오영석 박사의 생각은 달랐다. 오 박사는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의 의미에서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거나 간과하고 멀리하는 신학자는 성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삼위일체론은 성서의 근거를 갖는다(고후 13:13, 마 28:19). 그것은 시종일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에 대한 신앙에서, 그리고 인식에서 필수적으로 내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삼위일체 교리의 중대성을 천명한 바빙크의 견해를 수용한다”고 했다.

오 박사는 “바르트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는 논자(서철원 박사)의 인식은 바르트의 삼위일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간주된다”며 “만일 논자가 203쪽이나 되는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을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다면 논자가 ‘바르트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했다’고 보는 판단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바르트가 “자존하신 하나님도 없애버렸다”고 본 서 박사의 견해도 동의하지 않으며 “(바르트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외적인 행동과 관계와 자유로운 행동 속에 완전히 소진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이 모든 역사와 행동과 관계들을 초월해 영원히 자존하신 존재”라고 했다.

두 번째 논찬자인 소강석 박사는 “서철원 박사는 현대 신학자 5명의 삼위일체론의 핵심을 논파해 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없다고 명쾌한 결론을 내리셨다”고 했다.

특히 소 박사는 “(서 박사가) 쉐라이어마허의 절대 의존감정을 신앙의 본질로 본 것도 인본주의적인

것이며, 절대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상상적으로 설정한 완전한 존재라는 점에서 그에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도 적극 찬동한다”고 했다.

그러나 소 목사 역시 칼 바르트에 대한 서 박사의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 박사는 바르트에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했는데, 사실 바르트는 계시자 성부 하나님, 계시자 그 자체인 성자 하나님, 그리고 계시하는 존재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했다”면서 “이러한 3중적 구조에 상응하게 바르트는 교회교의학 1권 제2장 하나님의 계시론 제1절에서 말씀을 통한 계시의 3중성과 ‘계시자’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 제2절에서는 ‘계시 그 자체’인 성자(말씀)의 성육신에 관해, 그리고 제3절에서는 ‘계시 존재’인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시하시는 성부가 자존하신 하나님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소 박사는 “그러므로 바르트에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있지 않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한편, 그는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양태론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단지 바르트에게 더 큰 문제는 창조조건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창조설화로 이해하는 것과 선택 교리에서 모든 인간이 선택되었다는 보편구원론적 이해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형기 박사도 칼 바르트의 이해에 있어 서철원 박사와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주님으로 계시하신다’가 바르트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자기 계시의 기원이 된 것이고, 두 번째로 ‘계시-성경-선포’라고 하는 성경의 해석학적 순환의 기원이 되었다. 즉, (바르트는) 성서의 권위가 ‘하나님이 말씀(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하셨다’에 근거한다고 힘주어 주장했다”고 했다.

이 박사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때, ‘초월적이고 스스로 계시 하나님’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인류와 이 세계에 참여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 하나님은 고독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 속에 계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염안섭 원장의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인권의 가면 뒤에 숨은 동성애” 장신대에서 포럼

장신대 파로스포럼이 10일 오후 장신대 소양관 510호에서 ‘인권의 가면 뒤에 숨은 동성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파로스포럼이 ‘복음통일 그리고 거룩한 대한민국’이라는 모토를 갖고 처음 진행한 이날 세미나는 비교적 뜨거운 관심 속에서 1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이상 진행됐다. 첫 세미나 강사로는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이 나섰다. 호스피스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염 원장은 이들의 피해를 보고 느끼면서 이를 계기로 반동생애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염 원장은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노인의 경우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에 침입해서 뇌세포 손상으로 인한 치매와 중풍이 오고 반신불수가 되었다. 또 항문이나 마가져서 계속 옷에 피가 묻어 나온다”고 전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면 항문과 직장이 터지고 마가진다. 동성애는 사람의 몸을 가장 빨리 망치는 수단”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런 행위를 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항문성교를 통한 잘못된 성적 만족감 추구 때문이라고 했다.

염 원장은 “성소수자에는 동성애자뿐 아니라 동물성애자(수간), 기계성애자(메카노필리아), 시체성애자(네크로필리아) 등도 포함된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간이 합법화되어 있으며, 동물과 결혼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다”면서 “동물과의 성관계를 합법화시켜서 동물 매춘업소가 등장하고 동물 매춘으로 개가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동성애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성소수자들도 똑같은 논리로 들어온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에는 그 뒤에 엄청난 논제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원장은 또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는 틀린 말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다. 누가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동성애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염 원장은 “에이즈 환자 약값은 한 달에 600만원인데 이중 10%가 본인부담”이라며 “6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마저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에이즈에 걸려도 국가가 해결해 주는데 뭐가 걱정이라는 말이 실제로도 오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사이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저하게 ‘의역’으로 실시되는 에이즈 검사에 대해 “에이즈가 의심되면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가서 절대 자신의 신변을 밝히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도 전화로 확인한다”며 “환자 본인도 아니면서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에이즈 환자의 실태에 관해서는 “현재 국내 에이즈 감염 환자 수는 1만 1천 명이 넘었지만, 유엔 에이즈 통계법에 의하면 약 5만 명의 에이즈 감염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염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의 성적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확장된 성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성애까지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여 이런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영국과 미국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다. 왜 이를 막지 못한 것인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꼭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16269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저의 사무실이 저의 선교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5) - 지니 정 변호사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한다. 쓰레기통에는 쓸데없는 것이 담기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의 경험은 버릴 것이 없다. 지니 정 변호사와 인터뷰를 마치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삶은 쓰레기통이 필요 없는 삶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기자가 만난 지니 정 변호사는 커리어 우먼의 세련미가 물씬 풍겼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향기가 진동하는 시간이었다. 그녀가 고백하는 삶의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파워풀한 삶이었다. 인터뷰 당시 급식 종이었던 정 변호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침착 간증을 쏟아 냈다.

막막했던 어린 시절

정 변호사는 아버지께 대한 기억이 없다. 정 변호사가 세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남겨진 아들과 딸을 둔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하셨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큰외삼촌의 도움으로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에 적응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다.

기회의 땅 미국에 왔지만 어린 지니 정 의 가정은 힘들고 어려웠다. 뉘니 뉘니 해도 어머니의 삶이 가장 어려웠다. 어린 아들 딸을 홀로 키우는 젊은 아낙의 이민 생활이니 오죽했을까? 무슨 일이건 일을 해야 했다. 바느질 공장을 다니기도 했고, 건물 청소를 하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 고단하고 힘은 나날의 연속이었다.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이민 생활로 이끌어 주신 큰외삼촌은 여동생과 조카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어머니는 비교적 빠르게 교회 생활에 적응을 했고, 한글학교 봉사를 하며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 취직을 한 것이다. 영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그로부터 절대 가난은 벗어날 수가 있었지만 여전히 가난했다. 어

린 소녀 지니 정은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다. 지니 정에게 공부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래서 지니 정은 늘 우등생이었다. 또 지니 정은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에 주말이면 열심히 일을 했다. 가난과 고난의 의미를 아는 철든 아이로 성장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이 인생의 스승이 되어서 어린 지니 정을 철들게 했던 것이다.

아찔했던 청소년 시절

지니 정은 학교 생활 외에는 모두 힘들었다. 교회 생활에도 아무런 즐거움이 없었다. 집안에서도 힘들었다. 1.5세대들이 흔히 겪는 아픔이 부모들과의 역할 역전(Role Reversal)이다. 영어가 부족한 부모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다보니 부모를 상담하고 돌보는 자녀들이 많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자녀들을 돌볼 여유도 없고, 교육 시스템도 낯설어 자녀들의 진로에 개입을 거의 하지 못한다. 자녀들은 독립적이고 성취 동기가 강하지만 부모의 돌봄과 지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니 정 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지니 정은 자신의 일은 늘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대학 선택, 학과 선택 모두 스스로 결정했다. 로스쿨 진학도 스스로 결정했다. 그야말로 외로운 시절이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또래끼리 어울려 재미를 탐닉했다. 나름대로 선을 지키며 살았지만 되돌아 보면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았다.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넘어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다

지니 정은 열심히 살았다.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 드디어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되었는데 마음이 허전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변호사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할수록 마음이 허무했다.

그렇게 원하던 변호사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현실은 견디기 어려웠다. 그 허무감이 불행감이 되어 평평 우는 날도 있었다. 이

런 아픔의 나날을 보내는데 오랜 친구가 교회로 초청을 했다. 우연히 찾은 교회에서 지니 정 변호사는 감격의 예배, 통곡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정 변호사는 고아처럼 살았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다. 늘 고단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니 너무 흥분했다. 또 성령님을 체험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

사무실에서 양육을 받고

한 번의 은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정 변호사는 여전히 현실적 문제들로 휘청거리고 있었다. 가정 문제도 만만치 않았고, 변호사 업무 만만치 않았다. 힘겨워하던 정 변호사는 우연한 기회에 일대일 신앙 양육을 받게 된다.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성경공부를 하는 것에 어려움도 많았고 때로는 성경공부가 내키지 않았던 날도 있었다. 그러나 계속 성경공부를 했다.

일대일 성경공부 효과는 대단했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건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 성경공부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 웬만한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 용기와 원숙함을 얻게 되었다. 나아가 이제는 자신이 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발전했다.

일상의 삶에서 이루는 영성

정 변호사는 일상의 삶에서 영성을 유지한다. 우선, 자녀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한다. 자녀들과의 성경공부는 너무 너무 좋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아쉬움이 별로 없지만 어린 시절에 성경 말씀을 배웠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자녀들과 열심히 성경공부를 한다.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정 변호사의 기도제목이다.

또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한다. 일과 중에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다. 잠시 만나게 되는 파트타임 직원들에게도 성경을 선물하고 짬을 내어서 성경공부를 한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있다. 또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지니 정 변호사

성경공부를 한다. 정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서류를 접수하면서 기도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기도 한다. 정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와 더불어 영적인 나눔을 갖는 것이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이 선교지이고 사역의 현장이다.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지니 정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한다. 자신의 강의를 올리기도 하고 글도 올리며 주님을 따르는 자신의 삶을 나눈다. 이 블로그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공간이다. 아울러 이 블로그는 전도의 공간이기도 하다. 정 변호사는 글도 더 잘 쓰고 싶고, 강의도 더 잘 하고 싶다. 설득력 있는 글과 강의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자신의 삶을 만져주시

고 다듬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마음껏 전하고 싶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정 변호사처럼 갈등과 아픔을 겪는 다음세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전하고 싶어 한다. 정 변호사는 다음세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요즘 한인 2세대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아파하며 한인 2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 기도한다.

정 변호사는 언젠간 변호사 사무실을 박차고 나아갈 기회를 엿본다. 다음세대의 프로 안내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다. 다음세대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에 준비된 헌신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고 인생의 이정표를 보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강태광 편집위원

박종순 목사에게 길을 묻다

이강천 지음 288면 / 12,000원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맘몬이 지배하는 현실과 맘몬에 지배받는 우리가 아닌 맘몬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경제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소명을 점검하고 코이노니아적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선교하는 미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운영에 관한 관점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강천 지음 288면 / 12,000원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중세교회사 I, II

정수영 목사의 교회사 시리즈

중세교회사 1권은 1000년 동안 유럽 세계를 암흑으로 이끌어 간 타락과 부패의 역사를 밝히는 데 교황의 역사, 유럽교회의 역사, 주류교회와 다른 소수 교회 역사를 신약교회 사관에 의해 알아보고 교황들이 과연 신앙에 부합한 무리들이었는지 살펴보았다. 2권은 17세기 이전 유럽의 선교 역사, 동방정교회의 역사와 신학, 중세기 수도회 운동, 십자군 전쟁, 중세기 미신 신앙, 스콜라 신학과 신비주의 신학, 암흑 속에서 개혁 추구, 분리 교회의 역사 내용을 다뤘다.

정수영 지음 1권 484면 / 23,000원 · 2권 920면 / 40,000원(신국판 양장)

박종순 목사에게 길을 묻다

국민일보 <박종순 목사의 신앙 상담> 연재글을 모았다.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등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부딪히는 성도의 고민과 궁금증을 성경에서 답을 찾고 정통적 가치 안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러 물음에 관해 진솔한 답을 내놓는 저자 특유의 통찰력과 문체는 공감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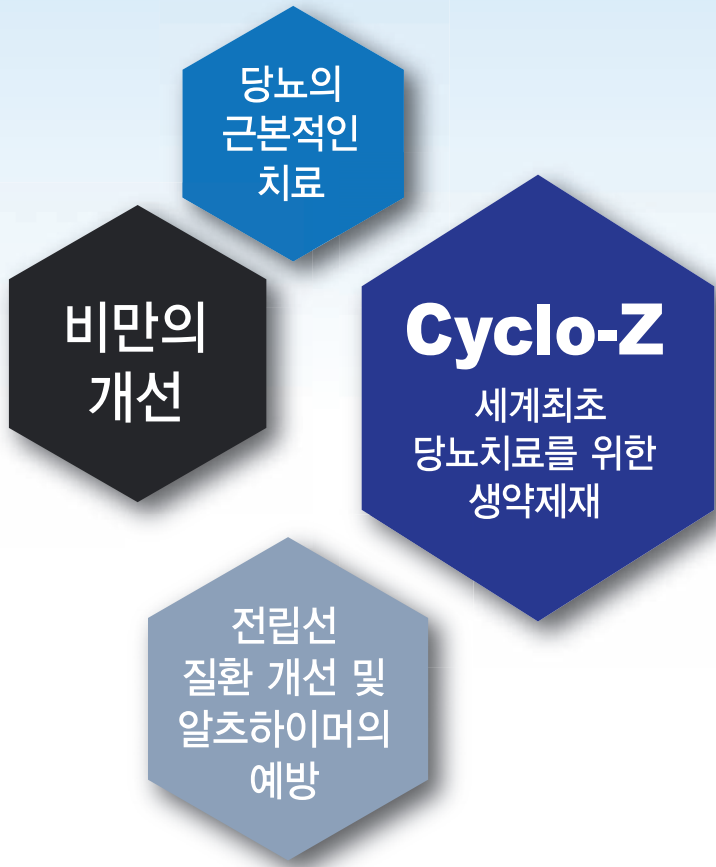
박종순 지음 344면 / 15,000원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이강천 지음 288면 / 12,000원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연령대별 당뇨병 | 30~44세 | 45~64세 | 65세 이상 |
|----------|--------|--------|--------|
| 환자 인지율 | 54.4% | 73.2% | 81.3% |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이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